

李敬儒의 詩文學觀 一考 -『滄海詩眼』을 중심으로-

조 정 윤*

< 目 次 >

I. 머리말	1. 工巧한 '下字' 및 '句法'의 강조
II. 詩學 및 典範에 대한 인식	2. '清·雅'한 풍격의 추구
III. 修辭와 風格	IV. 맺음말

< 국문 초록 >

조선 후기 영남의 문인 李敬儒(1750~1821)가 저술한 『滄海詩眼』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시에 대한 비평을 기록한 시화서이다. 본고에서는 『창해시안』의 시론과 비평을 중심으로 한시에 대한 이경유의 기본 인식 및 지향을 검토하였다.

이경유는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대 한시를 두루 익히고 공부하는 것을 넓은 범위에서 詩學의 기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唐詩, 그 중에서도 杜詩를 추송하여 典範으로 여겼으며, 學詩의 대상 뿐 아니라 실제 비평에 있어서도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공교하고 뛰어난 시를 짓기 위한 요건으로 詩意에 맞는 절묘한 글자를 적절한 자리에 알맞게 배치하는 '下字'를 강조하였으며, 句法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교묘한 對偶와 마지막 구절, 즉 '結句'의 완성도를 중시하였다. 표현에 있어서는 대상의 특징과 개성을 잘 포착하여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어를 선택해 형상화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도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창해시안』에서 뛰어난 시적 성취를 보인 작품을 품평한 평어로 '清'과 '雅'가

* 충남대학교 강사 / rldisdo@hanmail.net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이경유가 대체로 맑고 깨끗한 자연을 고원한 정신경계로 표현하여 탈속적인 시와 바르고 우아한 시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창작 상에서도 이러한 풍격의 시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滄海詩眼, 李敬儒, 詩話, 비평, 杜詩, 風格

I. 머리말

李敬儒(1750~1821)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를 살아간 시인이자 문학 비평가로, 자는 德懋이며, 호는 林下·半俗·滄海이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활동한 그는 대표적 영남지역 남인가 중 하나인 연안 이씨가의 후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學問과 文學, 藝術로 명망이 높았던 가문이었다. 東州 李敏求의 문인이자 詩文으로 명성이 있었던 博川 李沃(1641~1698)이 그의 고조부이다. 증조부 역시 당대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요, 서예가로 명성을 떨쳤던 息山 李萬敷(1664~1732)이며, 종증조부인 隱庵 李萬維(1674~?) 또한 형 이만부와 함께 詩名이 높았다. 부친인 剛齋 李承延과 叔父인 半龔齋 李秉延도 당대 申光洙·丁範祖 등과 함께 교유 및 문학 활동을 하면서 詩名을 나란히 한 시인이었다. 이경유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주로 거주하였으며, 菊圃 姜樸의 후손인 姜世白·姜世綸 형제 등과 '秋水社'라는 詩社를 조직하여 지역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경유의 저술로는 저자의 문집 『林下遺稿』와¹⁾ 시화 『滄海詩眼』이²⁾ 전해진다.

- 1) 현재 『林下遺稿』는 전체 12권 6책 가운데 5~6권에 해당하는 제3책은 일실되고, 나머지 5책이 필사본으로 전한다. 『임하유고』의 구성에 대해서는 강민구의 「滄海詩眼을 통해 본 18, 19세기 文學 批評 研究」(『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pp.878-879)를 참조할 수 있다.
- 2) 『창해시안』은 여러 종의 이본이 전하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가장 선본으로 추정되는 종중손 이병유가 필사한 上·中·下 三卷, 單本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각 축의 구분은 이병유 필사본의 순서에 의거하여 동일한 인물에 관한 기사일지라도 행을 바꾸었으면 분류하였다. 상권 77칙, 중권 214칙, 하권 116칙으로 총 407칙이

『滄海詩眼』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시와 시인에 대한 비평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엔 주로 唐宋明 문인들의 시를 수록하고 품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신라시대 최치원부터 고려 및 조선시대 시인과 시를 두루 품평하였다. 특히 저자가 살았던 동시기 영남 지역 문사에 대한 작품과 일화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영남 남인 문사들에 대한 정보와 문학적 면모를 다채롭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경유 및 『창해시안』과 관련해서 세 편의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먼저 『창해시안』을 저자와 저술목적, 체재, 수록 내용의 범위에 대해 살핀 후, 詩話論詩批評으로 나누어 각각 특징적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다. 이 논문은 『滄海詩眼』을 처음 발굴하여 소개한 의의를 지닌다.³⁾ 이어 『창해시안』을 칙별로 요약하고 조선 후기 시비평서로서의 특징을 열거한 성과가 있는데, 이 연구는 『창해시안』의 각칙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⁴⁾ 마지막으로 『창해시안』의 내용을 시론, 비평의 특징, 역대 시 비평, 選詩의식과 비평정신으로 나누어 검토한 성과가 있는데, 이는 이경유가 시를 보는 眞眼目을 주장했으며, 역대 비평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비평의식을 확립하였고, 당시를 시의 모범으로 삼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시를 비평하였으며, 시를 공평하게 품평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혀 『창해시안』 비평의 시화사적 의의를 구명하였다.⁵⁾

이상의 성과에서 『창해시안』은 체재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평적 특징 및 시화사적 의미 등이 해명되었으며, 아울러 이경유의 시 감식안

된다. 『창해시안』의 이본에 관해서는 최상근의 「林下 李敬儒의 滄海詩眼 연구-비평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회연구』 제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p.9)를 참조할 수 있다.

3) 권태을, 「滄海詩眼 考察: 林下詩評集의 紹介를 위해」, 『韓民族語文學』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4) 강민구, 「滄海詩眼을 통해본 18, 19세기 文學 批評 研究」,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5) 최상근, 「林下 李敬儒의 滄海詩眼 연구-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및 비평 의의에 관해서도 일정정도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감식안 및 비평의 근원이 그의 詩學 혹은 시문학관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볼 때, 그의 詩學 내지 詩文學觀에 관해서는 아직 면밀하게 구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창해시안』에서 보이는 시에 관한 논의와 실제 비평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이경유의 시문학적 인식과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그가 전범으로 본 대상과 작시 방법에 관한 논의 및 실제 품평 양상을 중심으로 이경유의 시문학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I. 詩學 및 典範에 대한 인식

이경유는 시학의 기본이 역대 시를 두루 공부하여 시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 대한 창작능력은 물론이고, 시 감식안도 길러진다고 보았다. 당시 사람들이 역대 시에 대한 공부 부족하여 시 감식안이 없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박천건이 또 김이주의 시 “봄이 오니 술 모임 적음을 오히려 꺼리고, 늙어 가니 벼슬 낮아짐을 싫어하지 않네.[春來酒會猶嫌闕, 老去官名不厭低]”라는 구절을 외우며 크게 칭찬하였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방옹[陸游]의 시이다. 방옹의 시에 “봄이 오니 술 모임 적음을 어찌 꺼리랴? 늙어 가니 시명 낮아짐을 싫어하지 않네.[春來酒會何妨少, 老去詩名不厭低]”라는 구절이 있는데, 다만 ‘何妨少’ 석 자와 ‘詩’ 한 자를 고쳤을 뿐이니 염치없는 것이 이와 같다. 이것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이 시에 대한 공부[詩學]가 없음을 알 수 있다.⁶⁾

6) 李景儒, 『滄海詩眼』, 中卷 156則, “朴又誦金頤柱之詩, 春來酒會猶嫌闕, 老去官名不厭低之句, 贊譽津津. 余不覺心笑, 此放翁詩也. 放翁詩有春來酒會何妨少, 老去詩名不厭低之句, 但改其何妨少三字及詩之一字耳, 若是其無廉恥也. 以此觀之, 時人之無詩學, 可知已.” (이하 『滄海詩眼』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 책명 표기를 생략한다. 예를 들면, 본 인용문의 경우엔 ‘中卷 156則’으로 기록한다.)

이경유는 金頤柱⁷⁾가 남송의 대표 시인 陸游⁸⁾의 시에서 서너 글자만 바꿔 시를 지은 것을 몰염치하다고 비판하였다. 박천건이⁹⁾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칭찬한 일에 대해서도 몹시 한심하게 여기며 詩學의 부족에서 비롯한 일이라 하였다. 중국 및 우리나라 역대 한시를 두루 익히고 공부하는 것을 詩學의 기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가 우리나라 및 중국의 역대 시인과 시를 선별하고 품평하여 『창해시안』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역대 시를 두루 독서하고 학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한가로이 지낼 때, 서가에서 고인의 시집을 아무거나 뽑아 마음대로 고쳐 보았는데, 唐詩에 이르러서는 끝내 한 글자도 고칠 수 없었으니, 천하 시 중에 공교한 것으로 당시만 한 것이 없다.”¹⁰⁾라고 하였다. 이는 역대 시 가운데 唐詩를 가장 흠잡을 데 없이 공교하고 이상적인 시로 파악하였음을 보여주는 구문이지만, 또한 그의 집안이 방대한 시집과 서적을 소장하였고, 그가 이를 폭넓게 열람하며 독서하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이경유는 文翰의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성장하며 역대 한시를 두루 학습하여 작시 능력은 물론이고, 예리한 감식안까지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시는 『시경』으로부터 이후 秦漢을 지나서 아래로 당의 시대에 이르러 그도가 크게 성하였다. 예를 들면, 진자양의 <感遇詩>와 이백의 古風과 두보의 여러 작품과 같은 것은 風雅의 遺意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5언·7언의 근체시가 생기고부터는 다만 聲響과 態色만을 취하여 불 만한 意趣가 매우 부족하였으니, 이것은 詩道가 한 번 변한 것이다.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크게 곤약을 당하

7) 金頤柱(1730~1797)는 月城尉 金漢藎과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의 아들이자 秋史 金正禧의 조부이다.

8) 陸游(1125~1210, 자 務觀 호 放翁)는 唐詩風의 강렬한 서정을 부흥시킨 점이 특색으로 평가된다.

9) 앞 기사인 中卷 155則의 ‘余嘗於聘君座, 遇朴天健者.’라는 구절에서 원문의 ‘朴’이 박천건을 알 수 있다. 天健은 朴旨瑞(1754~1821)의 초명으로, 호는 訥庵이다.

10) 下卷 13則, “余嘗閑居, 亂抽架上古人詩集, 隨意批抹, 至於唐詩, 終無一字可抹. 天下詩之工者, 莫唐若也.”

여 비록 陳黃陸과 같은 두세 명의 군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한때 漫浪의 시를 읊는 데로 귀결되어 끝내 순전히 古道에 합치되지는 못하였으니, 이른바 '문장이 시대와 더불어 오르고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¹¹⁾

이는 문장의 성쇠가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唐의 詩가 옛도에 합치되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 경유는 詩道면에서 唐詩가 詩經의 옛 道를 유지하고 있고, 宋詩는 크게 쇠퇴하여 옛 詩道를 상실하였으며, 明詩는 唐詩에 근접한 면이 있지만 시들고 유약하여 쇠퇴한 시대의 口氣를 지녔다고 평가하였다.¹²⁾ 우리나라 한시에 대해서는 음조와 성률면에서 당시보다는 못하지만 송시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았다.¹³⁾ 그는 또한 唐詩 중에서도 盛唐의 시가 가장 절정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진자양·이백·두보 등 여러 시인의 시가 『시경』을 비롯한 漢魏시대 古詩의 遺風을 간직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晚唐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화려한 성률과 표현만을 추구하여 점차 意趣가 부족하게 되었고, 송에 이르러서는 詩道가 크게 쇠락하여 이로써 『시경』의 유풍, 곧 옛 詩道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문학사에서 盛唐의 시는 漢魏·특히 建安시기·詩歌의 강건한 풍골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六朝이래 初唐에 이르는 시가의 조화된 성률에서 양분을 섭취하여 질박한 강건미와 완숙한 표현미가 잘 어우러져 文質彬彬한 시풍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¹⁴⁾ 따라서 이경유가 언급한 '風雅의 遺意', 곧 시경의 옛 詩道란 『시경』으로부터 漢魏의 고시로 이어지는 강건한 풍골과 질박한 의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 上卷 1則, "詩自三百篇以後, 歷秦漢而下迄于李唐之世, 其道大盛, 如陳子昂感遇·李白古風·子美諸作, 不失風雅遺意, 然始有五七言近體, 徒取響譽態色, 殊欠意趣可觀, 此詩道之一變也, 及宋而大厄, 雖有陳黃陸二三君子, 率歸於一時漫浪之吟, 而終不得純全合乎古道, 所謂文章與世升降者非耶."

12) 上卷 3則, "明詩近唐, 而但萎弱有衰世口氣."

13) 上卷 4則, "東方作者, 不下數千家, 音調聲律, 雖不逮李唐, 比宋殆過之."

14) 김은아, 「성당시인의 풍격형성에 관한 시대배경고」, 『중국문학연구』 9집, 한국중문학회, 1991.

盛唐詩를 우수성을 인정한 이경유는 또한 성당 시인 중에서도 杜甫를 최상의 시인으로 여겼다.

나는 두보 이전에 두보가 없었고 두보 이후에 두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보를 배우는 후인들은 한갓 두보의 一端만을 배우고 그 전체를 다 터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가 健實함은 여유가 있으나 淸潤(맑고 운택)함은 부족하다.¹⁵⁾

위 기사는 세상 사람들이 노수신을 두보에 비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설파한 것으로, 두보를 전무후무의 최고 시인으로 상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두보를 본받고자 하는 시인들이 그의 시의 부분만을 배웠을 뿐으로, 전체를 다 터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두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고 하여¹⁶⁾ 두보를 역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두보의 일단만을 배우고, 전체를 다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인의 시가 健實하기는 하지만 淸潤은 부족하다고 평한 것에서 杜詩를 健實과 淸潤을 고루 갖춘 시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경유는 이처럼 중국 한시사에서 唐을, 그 중에서도 盛唐을 중국문학 발전의 절정기로 파악하였으며, 두보의 문학적 성취를 최상의 경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사모하여 본받고자 한 李沃과 權階, 당대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蔡彭胤 등이 모두 杜詩 및 唐詩를 추송하고 배웠다고 기록하여¹⁸⁾ 唐詩 및 杜詩를 배워서 이룬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 적극적

15) 上卷 21則, “後人之學杜者, 徒學杜之一端, 未得其全體. 故其詩健實有餘, 而淸潤不足.”

16) 中卷 67則, “吾鄉有寡諧子, 菊圃之族子也, 隱處遐僻, 平生不以文藝鳴世, 而所爲詩頗佳. 其劍濠詩曰, 東南此最壯, 往往起風霆, 自納群川大, 長涵萬象明, 轍雲開鶴唳, 分葉見漁舠. 嘗要家大人評, 評曰, 誰謂子美之後, 更無子美. 不圖今日復覩草堂眞像.” 이 글은 예외적으로 후인의 시를 두보의 경지에 이른 시로 평가한 기사이나, 이경유의 품평이 아닌 그의 부친 이승연의 품평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7) 淸潤한 풍격에 대해서는 III-2장에서 다시 논한다.

18) 上卷 22則, “高祖博泉公, 平生喜杜詩, 副提學權公階, 好唐詩, 相與唱酬者, 果十篇, 一代士大夫爭慕效之. 蔡希庵踵而起, 大鳴於世, 希庵之詩, 亦學杜語者也.”

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시인 및 작품을 품평할 때 주로 唐詩 및 杜詩를 비평 기준으로 삼았다.¹⁹⁾ 곧 그가 사용한 ‘盛唐詩’와 ‘唐詩’, ‘杜詩’가 갖는 함의는 뛰어난 성취를 이룬 최상의 시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상에서와 같이 이경유는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대 한시를 두루 익히고 공부하는 것을 넓은 범위에서 시학의 기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한시 문학발전사에서도 唐, 그 중에서도 盛唐을 가장 절정기로 파악하고, 杜詩를 學詩의 典範으로 여겨 추승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비평에 있어서도 唐詩 및 杜詩를 기준으로 삼아 품평하였다.

Ⅲ. 修辭와 風格

1. 工巧한 ‘下字’ 및 ‘句法’의 강조

이경유는 훌륭한 시의 요건으로 공교함[工]을 추구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시가 중국의 시보다²¹⁾ 부족한 점으로 공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²⁾ 또한 “나는 일찍이 읍취현의 ‘문을 닫으니 단풍잎 떨어지고, 시구를 얻으니 백발이 새롭네.[閉門紅葉落, 得句白髮新]’라는 구절을 좋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의 아름다움만을 알고, 시의 공교함은 전혀 알지 못한다.”²³⁾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경유는 박은의 시가 아름답고도 공교하

19) 中卷 36則, “湖洲善爲唐語, 與石洲相表裡, 其詩如孤雲衆壑暮, 小雨一秋寒, 疎林秋盡雨, 荒店夜深燈, 優入唐域.”

20) 中卷 182則, “冲菴詩絕世用工, 不減唐人, 如憂病工侵鬢, 風霜未授衣, 舟楫通吳楚, 魚龍半邑墟, 雖子美, 必許之以一代風雅主人.”

21) 上卷 4則에서 “東方作者, 不下數千家, 音調聲律, 雖不逮李唐, 比宋殆過之.”라고 하여 宋詩보다는 우리나라 시가 낫다고 평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중국시는 唐詩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22) 中卷 86則, “東方詩, 大抵不工, 能爲古人語, 而無古人工, 此所以不如中國者也.”

23) 中卷 181則, “余嘗愛挹翠閉門紅葉落, 得句白髮新之句, 世人徒知其佳, 殊不識其工.” 제시된 시는 박은의 <雨中有懷澤之>의 함련에 해당한다.

여 애호한다고 밝히는 한편, 일반 사람들이 박은의 본 시구의 아름다움은 알지만 공교함은 전혀 모른다고 하여, ‘아름답다[佳]’는 평어와 ‘공교하다[工]’는 평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그가 이미 우리나라 시는 공교한 시가 드물다고 말했던 바, 공교함은 단순히 詩語 및 詩想의 아름다움과는 다소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곧 ‘공교함[工]’은 대상의 개성과 특징을 잘 포착하여 이를 사실적이면서도 참신하고 절묘하게 형상화한 시의 표현적 성취에 대한 평어로 쓰임을 볼 수 있다.

장손좌보의 <尋山家> 시는 다음과 같다.

홀로 산 집 찾아 쉬었다가 다시 건너니	獨訪山家歇還涉
띠 집은 솔잎 사이로 비스듬히 숨었네	茅屋斜連隔松葉
주인은 말을 들어도 아직 문을 열지 않고	主人聞語未開門
울타리 두른 채소밭에 노랑나비 날아다니네	繞籬野菜飛黃蝶

초계어은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산촌에 살 때, 배불리 먹고 지팡이를 짚고서 마음대로 이웃집 사립문을 찾았다가 잠깐 서서 기다렸는데, 눈앞의 경물이 모두 시 속의 말과 같았다. 그런 뒤에 그 공교함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포가 이른바 “자신이 작자의 입장이 되어 시를 지을 때의 광경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다.²⁴⁾

위 기사에서 이경유는 남송 때 인물인 胡子(1095~1170)의 『苕溪漁隱叢話』에 나오는 시화와 菊圃 姜樸의 말을 인용하여 일종의 시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인의 입장이 되어 그 창작 상황 및 경관을 실제 체험해 본 후에 장손좌보의 시 <尋山家>의 工巧한 성취를 깨달았다는 초계어은(胡子的 自號)의 시화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강박이 시를 감상할 때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시 지을 때의 광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언설을 부연하여 시 감상법을 서술하였다. 이는 감상자의 태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이 있는 서술이지만, 한편으로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 및景物

24) 中卷 53則, “長孫佐輔尋山家詩云, 獨訪山家歇還涉, 茅屋斜連隔松葉, 主人聞語未開門, 繞籬野菜飛黃蝶. 苕溪漁隱云, 余嘗居林落間, 食飽支筇縱步隣家之扉, 小立待之, 眼前景物, 悉如詩中語, 然後知其工也, 此菊圃所謂以其身設爲作者, 求見其屬思詩光景者也.”

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진실되게 표현한 것이 공교한 시로 평가받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곧 이경유는 경물의 특징에 대해 사실적이고 참신한 형상화를 통해 구현된 工巧性을 시적 성취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이경유는 冲庵 金淨의 시도 공교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김정 시는 “공교함이 세상에 드물어 당나라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심과 병은 귀밑머리를 잘도 침범하고, 바람과 서리에 옷도 주지 않네. [憂病工侵鬢, 風霜未授衣]”와 “배는 오나라 초나라로 통하고, 어룡은 고을 빈터에 반이네. [舟楫通吳楚, 魚龍半邑墟]”, 이 두 구절은 두보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⁵⁾ 김정은 조선 전기 송시풍에서 당시풍으로 변화해가는 시기의 선구적 시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²⁶⁾ 이경유 역시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김정 시의 공교함은 당시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으며, 몇몇 구절은 두보도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시의 공교함은 그가 전범으로 생각하는 唐詩의 중요한 특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杜詩에 근접한 척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시의 공교함이 좋은 시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었던 만큼, 作詩上에서도 공교함을 중시하고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경유는 공교한 시를 성취하기 위한 作詩 방법의 하나로 ‘下字’를 강조하였다. 곧 『창해시안』에서 뜻에 맞는 한 글자를 절묘하게 배치하는 것[下字]을 중시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시의 묘함은 한 글자에 있다. 옛사람은 한 글자로 스승을 삼았다.”고 하거나²⁷⁾ “시를 배우는 사람이 옛사람의 用力處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글자를 놓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한²⁸⁾ 언급 등에서 공교한 ‘下字’와 뛰어난 시적 성취가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下字’를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두보 역시 절묘한

25) 中卷 182則, “冲菴詩絕世用工, 不減唐人, 如憂病工侵鬢, 風霜未授衣, 舟楫通吳楚, 魚龍半邑墟. 雖子美, 必許之以一代風雅主人.”

26) 이항배, 「타인의 시문을 통해 본 충암 김정」, 『충청문화연구』 19집, 2017, pp.154-159.

27) 下卷 42則, “凡詩妙在一字, 古人以一字爲師.”

28) 上卷 10則, “學詩者, 欲識古人用力處, 當先看其下字.”

글자를 딱 맞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고심하였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공교로운 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두자미의 시에 “돌아가는 기러기 푸른 하늘을 기뻐하네.[歸鴈喜青天]”라고 한 것이 있고, 또 “황량한 뜰에 굴과 유자 드리웠네.[荒庭垂橘柚]”라고 한 것이 있고, 또 “강물 소리 흰 모래로 달리네.[江聲走白沙]”라고 한 것이 있으니, ‘喜·垂·走’자는 두자미 이전엔 표현해낸 사람이 있지 않으니, 이것이 자미가 힘쓴 곳이다.²⁹⁾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喜, 垂, 走는 동사로서 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 글자의 선정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돌아가는 기러기 푸른 하늘을 기뻐한다”는 구절은 두보의 〈倚仗〉시에 보이는 구절로 기러기가 맑은 하늘을 나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때 인간의 관점으로 기러기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비행에 좋은 조건인 푸른 하늘을 ‘기뻐한다[喜]’고 표현하였다. 〈禹廟〉시의 구절인 뒤의 두 구에서는 황량한 뜰에 굴과 유자나무가 정돈되지 않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드리웠다[垂]’는 표현으로 묘사하였고, 흘러가는 강물에서 나는 물소리를 ‘달리다[走]’는 공감각적 표현을 써서 참신하고도 공교로운 시구를 탄생시켰다. 곧 시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한 글자를 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下字]은 좋은 시를 짓는 요건 중 하나이자 杜詩의 특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도 이경유는 두보와 이백, 육유의 시에서 ‘濕’자와 ‘明’자를 절묘하게 사용한 예를 소개하며 작품에서 이 두 글자가 조화의 공을 빼앗았다고 평가하였고,³⁰⁾ 당나라 시인인 유방평의 시 ‘사창에 해지고 점점 황혼이 드는데, 규방엔 사람 없어 눈물흔적만 보이네. 적막한 뜰에 봄이 또 저물어, 배꽃 떨어져 땅에 가득해도 문 열리지 않네(紗窓日落漸黃昏, 金屋無人

29) 上卷 10則, “子美詩有曰, 歸鴈喜青天, 有曰, 荒庭垂橘柚, 有曰, 江聲走白沙, 喜字·垂字·走字, 子美之前, 人無有拈出者, 是子美用力處。”

30) 上卷 9則, “子美春夜喜雨詩結語曰, 曉看紅濕處, 太白有蜀江紅且明之句, 陸放翁春行詩一聯曰, 猩紅帶露海棠濕, 鴨綠平堤湖水明. 濕·明字, 奪造化之功, 世未有拈出者.”

見淚痕, 寂寞閑庭春又晚, 梨花滿地不開門.)에서 '又'자 한 글자로 봄의 원망을 다 표현해내었으니 이 한 글자가 저자의 고심처임을 알 수 있다고도 하였다.³¹⁾ 당나라 시인 유담의 시 〈涼州曲〉은 '空'자와 '本' 두 글자가 무한한 슬픔과 원망의 정을 다 묘사해 내었으니, 이 두 글자가 아니면 시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³²⁾ 이 외에도 송나라 진여의 〈歸洛道中〉시에 발현된 뛰어난 下字 솜씨에 대한 기록,³³⁾ 김창흡에게 下字法을 알려준 詩僧과의 일화,³⁴⁾ 張詠(946~1015, 북송인)의 시구에 蘇楚材가 한 글자를 고쳐주자 장영이 감사하며 '一字師'로 불렀다는 일화³⁵⁾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 모두가 절묘한 한 글자의 안배가 시적 성취에 얼마는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시의 句法上에서는 교묘한 대우와 마지막 구의 완성, 곧 '結句'를 중시하였다. 이병유는 오늘날의 시인이 옛 시인을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結句인데, 이 結句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5언 절구 및 근체시가 좋은 작품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하는 등³⁶⁾ 시 창작에서 結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對句와 結句를 공교롭게 잘 지은 시를

31) 上卷 11則, “劉方平春怨詩曰, 紗窓日落漸黃昏, 金屋無人見淚痕, 寂寞閑庭春又晚, 梨花滿地不開門. 只一又字, 寫出春怨, 可見方平苦思處.”

32) 上卷 12則, “柳中庸涼州曲曰, 關山萬里遠征人, 一望關山淚滿巾, 青海城頭空有月, 黃沙磧裡本無春, 空本二字, 寫盡無限哀怨之情, 若無空本字, 却不成詩.”

33) 中卷 8則, “簡齋歸洛道中作曰, 歸路忽踐楊柳影, 春事已到蕪菁花, 忽踐二字, 已驚時序之晚, 已到二字, 亦嘆客遊之久. 學者欲見古人精神, 當於忽踐已到四字求之也.”

34) 中卷 90則, “金三淵昌翁, 平生欲遊楓岳, 而未能也, 有詩曰, 象外清遊病未能, 夢中皆骨玉層層, 秋來萬二千峯月, 應照孤僧禮佛燈. 頗膾炙, 其後果遊楓岳, 遇詩僧, 與之言詩, 因問曰, 如今文章當先誰. 僧曰, 金昌翁大有聲稱, 然尚不識下字. 曰何謂不識下字. 僧曰, 秋來萬二千峯月, 應照孤僧禮佛燈, 甚藉藉. 然而月與燈司一明也, 以此之明, 照彼之明, 有何新奇. 是以知其不識下字也. 復問曰, 照字誠病, 何字爲當. 僧曰, 作字可. 三淵大覺悟, 歎賞而去. 僧實不知爲三淵, 而爲此語也.”

35) 下卷 42則, “凡詩妙在一字, 古人以一字爲師, 如齊己之拜鄭谷是也. 張乖厓在江南, 題一絕云, 獨恨太平無一事, 江南閑殺老尚書, 蕭楚材改恨作幸, 曰今天下一統, 公功高位重, 獨恨太平何耶. 張謝曰, 蕭君一字師也.”

36) 上卷 7則, “後人之不及古人者, 五言絕句與近體結句也, 東方之五絕, 絕無佳者, 近體結句, 尤甚, 遠自羅麗, 近逮當世, 惟菊圃識結句法.”

선별하여 비평하였다. 예를 들면 “당나라 시인인 杜荀鶴³⁷⁾이 지은 시 〈秋日旅中〉에서 앞의 두 구는 氣이고, 뒤의 두 구는 神이다. 이는 진실로 조화의 오묘함으로 그 사이에 사람의 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였으며,³⁸⁾ 당나라의 시인 유장경이 남평왕에게 올린 시의 결구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칭송하였다.³⁹⁾ 곧 자연스러우면서도 절묘한 ‘對偶句’와 마지막 구의 완성인 ‘結句’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시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대상의 특징과 개성, 기상 등을 잘 형상화하는 것과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어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빼어난 시어를 사용한 시를 제시하고 호평하였으며,⁴¹⁾ 대상의 특징과 기상, 정감 등을 개성적이고 생동적으로 형상화한 시를 소개하였다. 정사룡의 시 〈朴淵瀑〉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광경을 읊은 “맑을 땀 하늘을 날아 천고를 누비고, 비올 땀 늘어서 하늘의 반을 둘렀네.(晴飛千古練, 雨禪半天紳.)” 구를 제시하고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잘 형용해 내었다고 하였다.⁴²⁾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폭포 광경의 특징적 국면을 잘 포착하여 형상화한 점을 고평한 것이다. 또한 이어서 〈大灘〉의 시구를 제시하여 역시 그 지극한 묘사를 상찬하였다.

37) 杜荀鶴은 杜牧의 아들로 역시 시를 잘했다.

38) 中卷 6則, “杜荀鶴秋日旅中詩, 日少年心壯輕爲客, 一日病來思在家, 經雨凍蟬墮葉墮, 過湖秋雁趁雲斜. 前二句氣也, 後二句神也. 此固造化之妙, 有不容人力於其間, 誰謂小道而忽之也.”

39) 上卷 8則, “劉長卿之獻南平王詩, 日建牙吹角不聞喧, 亂世登壇衆所尊, 家散萬金酬死士, 身持一劍答君恩, 漁陽老將多回席, 楚國諸生半在門, 白馬翩翩春草細, 邵陵西去獵平原, 人或爲此起, 而不能爲此結, 千百載後, 令人欲舞.”

40) 下卷 46則, “王半山有一水護田將綠繞, 兩山排闥送青來之句, 李牧隱有田園未得悠然逝, 門巷何會顯者來之句, 朱新仲有何以報之青玉案, 我姑酌彼黃金壘之句, 李師中有詩成白也知無敵, 花落虞兮可奈何之句, 鄭雪谷誦有平生取與噲等伍, 後世必有楊雄知之句, 皆因古事, 自然爲妙對, 絕佳.”

41) 上卷 27則에서는 岑參의 詩語와 詩體가 준일함을 高評하였고, 中卷 59則에서는 族祖 석당옹이 詩思가 絕俗하여 詩語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다고 하였으며, 下卷 93칙에서는 李喜之의 시가 絕語가 많다고 하고 시를 소개하였다.

42) 中卷 183則, “湖陰朴淵瀑詩一聯, 晴飛千古練, 雨禪半天紳, 雖得形容其飛瀉噴薄之狀.”

호음의 <대탄> 시 한 연에 “뱃사공은 마음 좋아들려 하는데, 병든 객은 간담 먼저 꺾이네.”라는 구절이 있다. 다만 이 ‘뱃사공은 마음 좋아들려 하는데’는 대탄을 지극히 묘사하였으니 한가한 방에 앉아서 읽어도 마음이 오히려 작아 지려 하는데, 하물며 대탄의 물을 거슬러 건너는 사람이라. 수백 년 후에도 오히려 호음을 칭송하니, 모두 이름은 헛되이 전하지 않는 것이다.⁴³⁾

위에서 제시된 정사룡 시구는 큰 여울을 건너는 사람들의 심정을 포착하여 大灘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늘 배와 함께 물을 건너는 생활을 하는 뱃사공의 마음도 좋아들려 한다는 표현이 대탄의 위험스런 모습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경유 역시 대탄의 형상화에 있어서 경물의 모습이 아닌 물을 건너는 사람들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탄의 위험스런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형상화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간재 진여의의 <雨晴>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담장 위의 우는 까치 날개 아직 축축하고, 누각 밖의 남은 우레 아직 잦아들지 않았네.[塙頭語鵲衣猶濕, 樓外殘雷氣未平]” 새로 맑아진 경치는 사람이 혹 그려낼 수 있어도 이 시어는 그림으로 표현해 낼 수 없다.⁴⁴⁾

이 기사는 진여의의 <雨晴> 시에 대한 비평이다. 비가 개인 뒤의 맑아진 경관을 비에 젖은 까치와 잦아들고 있는 雷氣를 활용해서 참신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었다. 시인이 자신만의 개성적 시각으로 대상의 특징적 장면을 잘 포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에 이경유는 새로 맑아진 경치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시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이처럼 이경유는 시어의 선택과 형상화에 있어서는 대상의 특징적 국면과 기상을 잘 포착해서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어로

43) 中卷 184則, “湖陰大灘詩一聯, 有篙工心欲細, 病客膽先推之句, 只是篙工心欲細, 極寫大灘, 坐閑房讀之, 心尚欲細, 況泝過大灘者乎. 數百年之後, 尚稱湖陰, 儘名不虛傳矣.”

44) 中卷 23則, “簡齋雨晴詩, 有塙頭語鵲衣猶濕, 樓外殘雷氣未平之句, 新晴物色, 人或可畫, 而此語畫不得.”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경유는 자연스런 전고 사용을 주장하되 도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李安重이 당시를 그대로 도습한 것을 사람들이 '神句'라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게 바라보고⁴⁵⁾ 근세인이 시를 알아보는 참된 안목이 없음을 탄식하며, 도습은 시가에서 크게 꺼리는 바라고 비판하였다.⁴⁶⁾ 또한 도습이 시가에서 크게 꺼리는 바이기는 하나, 이백, 구양수, 채유후의 예를 들어 유명 시인조차도 서로 도습하였던 점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⁴⁷⁾ 이 외에도 창작능력이 뛰어난 姜樸도 의고시와 같은 몇몇 시는 도습의 흔적이 보이니 그 밖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고,⁴⁸⁾ 고려시대 최고의 시인인 이제현도 도습한 시가 보이며,⁴⁹⁾ 選體를 잘했던 최성대 역시 도습한 면이 있다고 하여⁵⁰⁾ 다수의 시인들이 도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각 글자와 구절, 시어의 선택과 형상화에 있어서 진실하면서도 참신하고 개성적인 창작으로 공교한 시를 이뤄야 한다는 견해를 지녔던 이경유에게 있어서 도습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下卷 91則, “李安重樵去山風細, 漁歸江月斜之句, 此移唐人全句, 而世皆不知其爲唐, 皆謂神句, 可笑.”

46) 中卷 189則, “近世人無眞眼目. 贊揚人, 不識頭顱沾沾然若不及, 余嘗病之, 趙山人胄遠詩, 有芦花浙歷雨連洲, 三峽征人夜泊舟, 秋水忽高三四尺, 明朝解纜過忠州之句, 藉藉於忠原之間, 然殊不識秋水忽高三四尺, 出於杜子美之秋水纔添四五尺之句, 明朝解纜過忠州, 出於陸務觀之, 一帆寒日過黃州之句, 可歎. 又況沿襲爲詩家之大忌者乎.”

47) 下卷 2則, “蹈襲爲詩家大忌, 古人亦不免互相蹈襲, 如李白之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之句, 蹈襲崔顥之. 昔人已乘白雲去, 此地空餘黃鶴樓之句. 歐陽永叔之鳥聲茅店雨, 野色柳橋春, 蹈襲孟東野之鷄聲茅店月, 人跡板橋霜之句. 蔡湖州之疎林秋盡雨, 荒店夜深燈之句, 蹈襲司空圖之曲塘春盡雨, 方響夜深船之句, 湖州嘗語人曰, 曲塘方響, 乃唐人語也, 唐詩適近之耳.”

48) 中卷 37則, “菊圃之才, 不下古人, 而其所爲擬古等諸詩, 亦未免河梁餘套, 況衆人乎.”

49) 中卷 208則, “高麗詩人, 益齋爲首, 而猶蹈襲古人, 如黃稻日肥鷄鶩喜, 碧梧秋老鳳凰愁之句, 必襲少陵黃稻啄餘鷄鶩粒, 碧梧栖老鳳凰枝也.”

50) 上卷 37則, “近者杜機, 亦善爲選體, 率皆古人已言之言, 而初月上中間, 女兒連袂出, 舉頭數天星, 星七儂亦七等語, 獨發前人未發者.” 中卷 143則, “杜機所爲山有花女歌, 極佳麗. 然但不免蹈襲孔雀東南飛行.”

2. ‘淸’·‘雅’한 風格의 추구

『창해시안』에서 높은 시적 성취를 이룬 작품의 평어를 살펴보면 ‘淸’자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淸은 “운치나 기운이 맑고 속됨이 없으며 표현이 잡스럽지 않고 깔끔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⁵¹⁾ 다른 풍격 용어와 결합할 때 대체로 앞글자로 많이 사용되어 작품의 주요 특질을 설명해 준다.⁵²⁾ 『창해시안』에서는 주로 淸麗·淸遠·淸警·淸潤 등으로 쓰였다.

‘淸麗’의 경우 시어 및 운치가 맑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쓰인다. 『창해시안』에서는 노비 출신의 시인 鄭逸의 시를 품평하면서 사용한 예를 볼 수 있다.⁵³⁾ 정일의 시 중 〈白鷗〉를 예로 들어본다.⁵⁴⁾

동호의 봄 물결 쪽빛보다 푸르러	東湖春水碧於藍
해오라기 또렷이 두세 마리 보이네	白鳥分明見兩三
노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柔槽一聲飛去盡
노을 아래 산빛만 강물 아래 가득하네	夕陽山色滿空潭

정일이 동호를 지나며 바라보이는 풍경을 읊은 것이다.⁵⁵⁾ 어려운 글자나 난삽한 시어를 쓰지 않았으며 묘사한 풍경이 한 폭의 그림같이 맑고 선명하게 다가온다. 이경유는 정일의 이와 같은 시적 면모를 매우 淸麗하다고 품평하였다.

51)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研究」,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p.287.

52) ‘淸’이라는 풍격을 형성하는 작품 내적 요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첫째 시적 경계의 맑음을 지향하고, 둘째 작품을 음讀할 때 맑게 울리는 유성음이 대부분이며, 셋째 난삽한 典故는 물론이고 거의 典故가 없는 편임을 들 수 있다(金鍊秀, 『漢詩風格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36-37).

53) 鄭逸은 鄭樵夫라는 별칭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呂春永의 家奴이다.

54) 中卷 32則, “東湖樵客鄭逸人奴也. 其詩極淸麗, 白鷗詩最膾炙曰, 東湖春水碧於藍, 白鳥分明見兩三, 柔槽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空潭. 又曰, 亭亭人立夕陽時, 紅蓼綠簑兩相宜. 意到忽然翻雪去, 青山影裡赴誰期. 贈安東老妓曰, 少日淸音發絳脣, 畫樑明月下輕塵. 皓齒全疎玉喉咽, 猶將舊曲教傍人, 與吾族祖天然子善, 相與唱酬累數篇, 皆帶晚唐痕.”

55) 이 시는 정초부 당시에 널리 회자되어 김홍도의 〈渡江圖〉에 제화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淸遠’은 대체로 시인의 맑으면서도 高遠하고 悠遠한 정신적 지향성을 표출하는 풍격 용어로 사용된다.⁵⁶⁾ 이경유는 전겸익의 <八月十三夜>시 “호산에 오래도록 앉아 모든 달빛을 얻고, 멀리 하늘을 보니 비로소 가을 임을 알겠네.[坐久湖山皆得月, 望窮天宇始知秋]”를 淸遠한 구절로 언급하며, 전겸익 작품 중에서도 빼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⁵⁷⁾ ‘湖山’·‘月’·‘秋’ 등의 맑고 선명한 자연물의 이미지에서 ‘淸’의 풍격이 느껴지며, ‘久’·‘窮’과 ‘皆得’·‘始知’와 같은 시어에서 가볍지 않으면서 탈속적이고 悠遠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를 ‘淸遠’하다고 품평한 것으로 보인다.

『창해시안』에서 ‘淸’자가 쓰인 풍격 용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淸警’이다.⁵⁸⁾ ‘警’은 놀라게 하다, 경계하다, 깨우치게 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곧 맑고 깨끗해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기상이 담긴 작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淸계열의 시적 풍격이 唐詩風의 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淸’은 唐詩만이 아닌 古詩류의 특징적 풍격 용어로도 쓰인다. 그러나 “황정건의 시는 典實은 남음이 있으나 매양 ‘淸潤’은 부족하다. 이것은 필시 두보를 배우다가 골자를 얻지 못하고 다만 피부만 얻은 까닭이다. 그의 <雲鶴>시의 한 연에 ‘바람이 불어오니 또 십 리를 날아가고, 차가운 밤엔 응당 구천에 깃드네.[風散又成十里去, 夜寒應上九天栖]’라고 한 것은 두보에 가까우나 두보의 ‘淸警’함은 없다.”⁵⁹⁾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경유는 杜詩의 ‘淸警’함을 엄두하고 품평한 것으로 보인다. 곧 杜詩 풍격의 핵심이 ‘淸警’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피적 ‘典實’과 핵심적 ‘淸警’이 함께 구현되어야 杜詩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⁶⁰⁾ 한편 이 구

56) 金鍊秀 전개 논문, p.45.

57) 下卷 67則, “錢謙益八月十三夜詩, 坐久湖山皆得月, 望窮天宇始知秋, 頗淸遠, 是其集中之稀有者也.”

58) 총 7차례 등장한다.

59) 中卷 48則, “山谷詩典實有餘, 而每欠淸潤, 此必學杜, 而未得骨子, 只得皮膚故也, 其雲鶴詩一聯 風散又成十里去, 夜寒應上九天栖, 近杜而無杜之淸警.”

60) 이는 강박과 이중환의 시론과도 유사한 견해이다(이현일, 『『삼명시화』로 본 18세기 한시사』, 『민족문학사연구』 27, 2005, pp.53-59 참조).

문은 '청운'과 '청경'이 혼재되어 쓰여 "두보를 배우는 후인들은 한갓 두보의 一端만을 배우고, 그 전체를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시가 健實함은 여유가 있으나 淸潤함은 부족하다."고⁶¹⁾ 한 구절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곧 '淸警'은 '淸潤'과 '典實'은 '健實'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건' 또는 '청운'의 풍격을 성취하였음은 또한 두보의 시적 성취에 거의 도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유는 이학원의 시를 '청경'하다고 평하면서 6개의 대구를 제시하였다.⁶²⁾ 李學源⁶³⁾의 시구는 "거의 깨끗이 씻었으니, 大曆 이후에 어찌 이 시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淘洗殆盡, 大曆以後, 安得似此語也.)"라고 하여 맑고 선명한 운치가 사람을 경계시키는 시구로 들고 그 시적 성취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채유후 시의 대체적인 특징으로 역시 '청경'을 꼽았다.

호주의 시는 대체로 청경함이 뛰어나다. 그의 절구에,
 눈 같은 흰 모래에 하늘같이 푸른 물 白沙如雪水如天
 긴 밤 차가운 창 아래 홀로 잠 못드네 永夜寒窓獨不眠
 버들 밖 사람 소리 때때로 들리고 柳外人聲時入耳
 달 밝으니 여울을 올라가는 배 있는 줄 알겠네 月明知有上灘船
 라는 구절이 있다. 이한평이 벽에 쓰기를 "사원종장"이라 하였다.⁶⁴⁾

채유후는 이민구와 함께 남인 시단에서 명성을 나란히 하였던 인물이다. 이경유는 그를 '당시에 능하여 권필과 표리가 된다'고 평가하는 등, 그

61) 上卷 21則, "後人之學杜者, 徒學杜之一端, 未得其全體, 故其詩健實有餘, 而淸潤不足."

62) 中卷 111則, "李候學源詩極淸警. 如燕子歸來春寂寂, 桃花落去雨霏霏, 孤月洗來三夜雨, 小山瘦盡五更風, 晚帆多於沙上雁, 春山半是雨餘雲, 偶思閑事凭櫺久, 漸見斜陽上屋高, 停雲淮海三千里, 月江城十二樓, 花源再到逢寒食, 春水方生渡洛東等句, 淘洗殆盡, 大曆以後, 安得似此語也."

中卷 112則, "其所語古詩, 不是空言, 使人諷詠, 極知有意味."

63) 李學源(1732~?)은 본관이 연안, 자가 첩之이다. 아버지는 李喆輔, 형은 李福源(1719~1792)이다.

64) 中卷 89則, "湖洲詩, 大低淸警絕人, 其絕句, 有白沙如雪水如天, 永夜寒窓獨不眠. 柳外人聲時入耳, 月明知有上灘船之句, 李韓不書之壁上曰, 詞苑宗匠."

의 시의 당시적 특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⁶⁵⁾ 위의 기사에서도 채유후의 역시 청경한 당시풍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한평의 말을 빌려 '사원의 종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노수신의 〈용추원루〉 시에 대해서도 "이것을 읽으면 바야흐로 이 노인이 시의 성인임을 알 수 있다. 기구인 '현의 누대에 가는 비 내리네.[縣樓微雨來]'라는 것은 이미 淸潤하니 배우는 사람이 우리를 만하고, ... 전편은 대체로 층후하여 고친 흔적이 없으니, 소름이 아니라면 능하겠는가!"라고 상찬하였다.⁶⁶⁾ 이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詩聖[두보의 별칭]'에서 '청운'으로, 다시 '두보'로 이어지며 극찬하고 있는 점이다. 곧 '청운'한 시풍이 '두시'적 성취의 풍격을 이르는 말로 동일시되어 쓰이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⁶⁷⁾

이상 이경유가 '청'의 풍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들을 보면 대체로 맑고 깨끗한 자연의 물상을 고원한 정신경계로 읊고 있어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가 많다. 또한 '청경' 및 '청운'의 평어는 杜詩와 같은 성취를 이룬 작품에서 사용되어 이상적 시적 경계의 평어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淸' 다음으로 자주 보이는 것이 '雅'자 관련 평어이다. '雅'의 의미는 '正'이다. 〈詩序〉에서 '천하의 정사를 말하고, 사방의 풍속을 형용하는 것을 雅라고 한다. 雅란 올바른이다. 왕정이 흥하고 망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 雅者,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也.)'라고 한

65) 中卷 36~38則.

66) 中卷 185則, "盧文簡龍柳院樓詩曰, 一宿嶺下縣, 縣樓微雨來, 山容主吃角, 水勢龍湫哀, 亂世君王聖, 迷途老病催, 去留均失意, 沾洒重徘徊, 讀此, 方知此老之聖於詩也. 起句縣樓微雨來, 已淸潤, 學者可仰, 頷聯始入龍湫, 頸聯憂國傷時之意, 溢於辭表, 結句復爲苦語感慨. 全篇大體忠厚, 無斧鑿痕, 除非少陵而能之乎. 讀此, 方知此老之聖於詩也."

67) 노수신의 〈東湖送別〉을 비평한 것도 유사하다. 中卷 186則, "文簡東湖送別詩曰, 城東三月大湖平, 一帶林風相與淸, 花片本來隨世態, 柳條何以繫人情. 沿江百丈依依色, 喚渡長年歷歷聲, 免洞龍灘如在眼, 數行衰涕暗霑纓, 首二句淸潤中加雄渾, 第二花片本來隨世態, 柳條何以繫人情, 却是世外語, 味外味, 非蘇老寫不得, 雖子美, 罕有此語. 結句始道別離之情, 尤可仰也."

것에서부터 '雅'는 '正'의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는 『시경』의 '思無邪'의 개념 및 경전의 기본 성격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문학 비평상에서도 경전에 녹아있는 올바른 정신을 담고 있는 문사 역시 전아함의 의미를 담은 품평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⁶⁸⁾

'雅'의 풍격은 '健·'淡·'典과 같은 評語와 함께 쓰여 '바르고 굳센[雅健]', '바르고 담박한[雅淡]', '전통적인 법도를 지키면서도 우아한[典雅]'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경유는 김창협이 시가 唐詩와 매우 근사한 이유로 '雅而不泰'라고 평하였듯이⁶⁹⁾ '雅'의 풍격을 詩意 및 수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것이 지켜야 할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단아함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것이 훌륭한 시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정종로 士仰은 경전이 배속에 가득하여 문장이 典雅하다. 그 시도 그 사람과 같았으니, "발을 걷으니 맑은 하늘 나타나고, 미미하게 맑은 이슬 드리웠네.[卷箔澄靄出, 微微王露垂]"라고 한 것과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⁷⁰⁾

위 기사의 鄭宗魯(1733~1816, 자 士仰, 호 立齋 無適翁)는 鄭經世의 6대손으로, 李象靖의 문인이며,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자 곧 이경유의 스승이다.⁷¹⁾ 이경유는 가까이에서 모셨던 스승 정종로의 인품이나 학문세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경전의 공부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정종로의 문장 역시 전아하다고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경유는 '雅'를 고즈넉한 풍경을 한 폭의 담박한 동양화같이 묘사한 시를 품평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68) 노상근, 「典雅 의경의 미학사적 고찰」, 『중어중문학』 25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9.

69) 中卷 95則, "農岩之詩, 雅而不泰, 最近唐詩, 然而亦略效今語, 無乃風氣使然也. 如經行一磴峻, 對宿二僧寒, 江風吹散髮, 山色映觀書, 舟前春色今如此, 寒碧樓頭共不禁之句, 是效今語者也."

70) 中卷 154則, "鄭宗魯士仰, 經籍滿腹, 文章典雅, 其詩亦如其人, 如卷箔澄靄出, 微微王露垂之類, 是也."

71) 이경유가 정종로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임하유고』에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지봉 이수광의 시는 雅淡하여 그림 같다. “호숫가 정자는 땅이 좁아 거의 강에 닿고, 야객은 시가 맑아 절반은 산을 말하네.[湖亭地仄多臨水, 野客詩清半說山]”라고 한 것과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⁷²⁾

두 구가 ‘湖亭’·‘夜客’, ‘水’·‘山’, ‘多’·‘半’와 같이 평범한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대를 잘 이루고 있고, ‘地仄’이라고 표현하여 좁고 경사진 언덕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로 호수가 펼쳐져 있는 모습과 정자 안에서 주변 풍광을 맑은 시로 읊조리는 나그네의 모습이 조출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경유는 이수광의 본 시구를 아담하여 그림 같다고 품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경유는 아담함은 응혼함과 의미상 배치되는 면이 있어 함께 표현되기 어려운데, 이수광의 〈送楊御史赴援〉시의 경우 두 가지를 다 갖춘 시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무릇 시가 응혼하면 매양 아담을 손상시킨다. 오직 지봉 선배는 시어가 비록 응혼하지만 旨意는 아담함을 잃지 않았으니, 〈送楊御史赴援〉시 같은 것이 이것이다. 그 시를 보면,

저물녘 외로운 성에 급보가 많은데	日夕孤城羽報多
십만 오랑캐 요하에 가깝네	天驕十萬近遼河
원수는 홀로 청총마 타고	元戎獨擁青總馬
장사는 모두 흰 낙타 탔네	壯士皆騎白豪駝
변방에서 이름 떨치니 지금의 구준이고	塞上威名今寇準
궁중에서의 재략은 옛날의 엄파이네	禁中才略古廉頗
다만 응당 곽분양의 투구를 벗고	只應免却汾陽冑
군사 앞에 약갈라를 생포하겠네	生致軍前藥葛羅

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절로 응혼하지 않음이 없고, 말과 뜻은 아담함을 잃지 않았으니, 결코 자잘한 詩家의 재주가 아니어서 더욱 공경스럽다.⁷³⁾

72) 中卷 199則, “芝峯詩, 雅淡如畫, 如湖亭地仄多臨水, 野客詩清半說山之類, 是也.”

73) 中卷 201則, “凡詩雄渾, 則每傷雅淡, 惟芝峯先輩, 句語雖或雄渾, 旨意不失雅淡, 如送楊御史赴援詩是也, 其詩曰, 日夕孤城羽報多, 天驕十萬近遼河, 元戎獨擁青驄馬, 壯士皆騎白豪駝, 塞上威名今寇準, 禁中才略古廉頗, 只應免却汾陽冑, 生致軍前藥葛羅, 其題自不得不雄渾, 而命詞屬意, 不失雅淡, 決非小家數也, 尤可敬.”

이 시의 원제목은 〈聞虜入瀋陽之境 楊御史領兵赴援〉으로 금나라가 심양 지역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구원하러 나가는 양어사를 송별하며 지은 시인 것이다. 명나라와 금나라의 전쟁에 파병 나가는 장수를 송별하는 시인만큼 떠나는 이를 독려하는 씩씩하면서도 장쾌한 기상이 시의 전반에 나타난다. 이에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큰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낸 송나라의 寇準(961~1023, 거란 침입 시 戰功을 세움)과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 廉頗(진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함)를 등장시켜 옹호한 기상을 고조시켰다. 그러면서도 당 현종때 안사의 난을 평정한 좌익을 등장시켜 그가 回紇의 침입에 갑옷과 창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의 대장 藥葛羅의 손을 잡고 꾸짖어 상대를 감복시켜 물리친 고사를 활용하여 무력과 폭압에 의한 승리가 아닌 감화에 의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에서 올바른 시의를 펼쳐내었다. 이에 이경유는 시가 '雄渾'하면 '雅淡'이 손상되기 쉬운데, 위의 시는 주제 면에서 옹호한 기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과 詩意에 있어서 아담함을 잃지 않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상 이경유는 전아한 풍격의 시를 뽑진한 당시에 가깝고 외위 전승할 만한 훌륭한 시로 평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⁷⁴⁾

한편, 『창해시안』에서는 唐詩에 근사한 시를 지은 시인으로 여러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⁷⁵⁾ 다음 기사는 이경유가 자신이 남인이면서도 노론인 김창협을 시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⁷⁶⁾

74) 中卷 152則, “晉庵詩如陰陽迭運緣何急, 天地俱空與我浮, 鴈背平臨千里色, 鰲頭高壓百靈幽之句, 頗雅健可誦.”

75) 明나라에서는 이몽양과 하경명을 들었다. 下卷 92則, “皇明詩人如李夢陽、何景明, 最爲逼唐, 編之於唐詩集中, 雖使具眼者辨之, 恐未易爲也, 酒邊花樹三春暗, 湖上林風盡日清, 綠堤塹柳葉相暗, 隔屋山桃花獨明, 孤槎奉使日南國, 萬里題詩天畔亭, 地入金沙江浩浩, 風連銅柱海冥冥, 皆二子之所善鳴者也.”

76) 中卷 61則, “大要其詩高處在農、淵以上, 平處亦不下於近世名家.”에서와 같이 ‘시의 높은 곳은 농암과 삼연이상이고, 평범한 곳도 근세의 이름난 사람에 못지않다.’라고 하여 농암과 삼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농암의 시는 우아하나(정도를 넘어서) 크지 않으니 唐詩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또한 대략 지금의 말을 본받았으니 풍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파른 돌 비탈길 지나와, 초라한 두 승과 유숙하네.'와 '강바람 불어 머리카락 흩어지고, 산 빛이 보던 책에 비치네.'와 '배 앞의 봄 풍경 지금 이와 같으니, 한벽루 어귀에도 봄을 막지 못하리라.'라고 한 것과 같은 구절이 곧 지금의 말을 본받은 것이다.⁷⁷⁾

김창협을 시를 唐詩에 가장 가깝다고 하며 그 이유를 우아하면서도 도를 벗어나지 않는[雅而不泰] 풍격에서 찾았다. 또한 김창협 시가 '雅而不泰'한 특징 외에도 유량하고 청원한 시격을 자아내는 것이 당시와 매우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⁷⁸⁾

이 외에도 또한 이경유는 속세를 벗어난 풍격을 지닌 시들을 '絕俗'·'脫俗'·'絕世'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李用休의 문장이 매우 기이하여 세속을 벗어나니 鄭瀾(1725~1791)에게 준 시 두 구절은 세속의 말이 아니라고 하였고,⁷⁹⁾ 홍세태의 시어 역시 '絕世'의 풍취가 있으며, 매우 호탕하다고 평가하였다.⁸⁰⁾ 호남의 처사 소옹천 시를 평가하면서는 '시선은 건너도 보통사람은 건너지 못하네.[渡是詩仙不渡凡]'라는 한 구절은 '초연히 속세를 벗어나는 시상이 있(超然出塵之想)'어 학자들이 더욱 우리를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⁸¹⁾ 南野 朴孫慶(1713~1782)의

77) 中卷 95則, "農岩之詩, 雅而不泰, 最近唐詩, 然而亦略效今語, 無乃風氣使然也. 如經行一磴峻, 對宿二僧寒, 江風吹散髮, 山色映觀書, 舟前春色今如此, 寒碧樓頭共不禁之句, 是效今語者也."

78) 中卷 147則, "金農巖詩, 切近唐語者, 如江空易成響, 烟遠似無端, 鴈驚歸人吏, 神仙臥使君, 灘聲每夜雨, 山色一樓雲, 天留將落月, 野有欲鋪雲之類是也, 江空易成響, 烟遠似無端, 聞笛詩也, 尤瀏亮清遠, 讀之如王宇高寒水崖飛瀑逼人, 寒冽也, 南克寬之以捷賊, 膝甲賊譏之者, 殆過矣哉."

79) 中卷 113則, "惠賓居士文章奇邁絕俗, 其贈滄海逸士詩二句, 可知其非俗語. 有曰, 萬枕同駒駒, 皆作富貴夢者是也."

80) 中卷 141則, "洪世泰號柳下, 非士族氏也, 而詩語絕世, 如歸鴻得意天空闊, 臥柳生心水動搖之句, 極豪宕."

81) 中卷 170則, "湖南處士蘇凝天一渾武陵橋詩曰, 壺口欲開復半涵, 洞中雲樹重重絨, 虹橋咫尺分清濁, 渡是詩仙不渡凡. 渡是詩仙不渡凡一句, 有超然出塵之想, 學者尤可仰."

시를 평가하면서는 “매우 소쇄하여 수행자의 風이다.”라고 품평하였다.⁸²⁾ 곧 ‘淸의 풍격과도 연관이 있는 탈속적 시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 그가 추구하는 시의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창해시안』의 시론과 비평을 통해 이경유의 시문학에 대한 기본적 인식 및 지향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이경유는 시학의 기본은 역대 시를 두루 학습하여 시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것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에 대한 창작 능력은 물론이고 감식안이 길러진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 한시사에서 盛唐을 중국 문학발전사에서 절정기로 파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두보의 시를 가장 최상의 경지로 여겼다.

시 창작에 있어서 공교함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인 작시 방법으로 ‘下字’를 중시하였으며, 句法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절묘한 대우와 마지막 구인 ‘結句’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의 특징과 개성, 기상 등을 잘 포착하여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어로 형상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창해시안』에서 뛰어난 시적 성취를 보인 작품을 품평한 평어로 ‘淸과 雅’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이경유가 대체로 맑고 깨끗한 자연을 고원한 정신경계로 표현하여 탈속적인 시와 바르고 우아한 시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창작 상에서도 이러한 풍격의 시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82) 中卷 153則, “南野詩有青山別去留孤夢, 黃葉重來約老會之句, 極蕭酒, 道者風.”

〈參考 文獻〉

- 李敬儒, 『林下遺稿』(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_____, 『滄海詩眼』(후손 소장본)
- 강민구, 「滄海詩眼을 통해본 18, 19세기 文學 批評 研究」,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 권태을, 「滄海詩眼 考察: 林下詩評集의 紹介를 위해」, 『韓民族語文學』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 金鍊秀, 「漢詩風格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은아, 「성당시인의 풍경형성에 관한 시대배경고」, 『중국문학연구』 9집, 한국중문학회, 1991.
- 노상균, 「典雅」의경의 미학사적 고찰」, 『중어중문학』 25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9.
-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研究」,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 이항배, 「타인의 시문을 통해 본 충암 김정」, 『충청문화연구』 19집, 2017.
- 이현일, 「『三溟詩話』로 본 18세기 漢詩史」,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최상근, 「임하 이경유의 창해시안 연구—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Abstract

Study on Lee Kyung-yu's poetic-literary viewpoint
- Focused on the 『Changhaesian(滄海詩眼)』

Cho Jeong-yun*

The 『Changhaesian(滄海詩眼)』, which Lee Kyung-yu (1750~1821), a writer of Yeongnam area wrot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is a book about remarks on poetry which recorded criticism about poetry of many generations of China and Chosun. In this paper, I examined thoroughly basic recognition and intention about Lee Kyung-yu's poetic literature shown in poetics and criticism of 『Changhaesian』.

Lee Kyung-yu recognized Seong-Tang(盛唐) as one of the climaxes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m and, in particular, Chinese history of literary development. He evaluated Tu Fu's poem as the best among the poems in the Seong Tang Dynasty because he considered the extremes of poetry's craftsmanship was achieved.

Lee Kyung-yu emphasized Haja(下字) as a requirement for constructing crafted poems, and regarded the importance of natural and subtle Daewoo(對偶) and last phrase Gyeolgu(結句) in Gubeob(句法). In addition, he considered it as important to select and use novel and unique poetic words while the characteristics, individuality, and spirit of the subject were well embodied in expression.

Cheong(淸) and Ah(雅) appear in numerous cases as a complimentary piece of work that has shown excellent poetic achievement in 『Changhaesian』. This means that Lee expressed clear and clean nature as the high-level mental boundary and highly valued the graceful, upright, and unworldly poems. In addition, he showed that he was oriented towards these poems of distinctive characters in creative writing.

【Key words】 Changhaesian(滄海詩眼), Lee Kyung-yu(李敬儒), remark on poetry, criticism, Dusi(杜詩), Literary Style.

투고일 :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12월 03일, 게재확정일 : 12월 08일

* Lecturer of Chungnam Univ. / rldiso@hanmail.net